

# 끊겨진 백두대간 이어질 날은...

월 1회 연재

## 백두대간 숨결 듣는다

→ 9 · 끝 ←

금강산



부처님 치아사리가 봉안된 적멸보궁이 서늘에 덮여있다.

설악의 기암괴봉들은 진부령을 넘어 숨을 낚는다. 금강산의 절경이 설악으로 내리 뿔으며 짐시 호흡을 기다리는 것일까. 백두에서 뿔어 내는 대간의 숨결은 차츰차츰 다가와서 숨겨져 있다. 한민도의 거대한 산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본단의 아픔을 말할 때 가장 먼저 '그리운 금강산'을 논하는 것은 북녘의 금강산이 그 수려한 비경과 절치로 남녘의 모든 산들을 아우르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힘이란 다름아닌 민족의 역사를 상징하는 백두대간의 정점이 금강산에서 남녘의 모든 산들로 이어진다는 믿음의 표상이기도 하다.

철쭉선 너머 북녘 하늘을 향해 서 있는 석조부처님은 주변의 통일기원탑과 함께 전망대의 명물로 자리잡고 있다.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다 보이는 금강산의 자락은 일출봉, 채화봉, 육선봉, 집선봉, 세존봉, 옥녀봉, 신선대, 구선봉으로 이어지는 산악지역과 입석의 동쪽 해금



통일전망대에 서면 금강산이 손에 잡힐듯 하다. 해안지역의 현종암, 책사암 등이 해금강을 장식하고 산악지역에는 구선봉에서 시작되는 연봉들이 눈에 들어온다.

강 이후 이 지역에서 순직한 호국영령 1천2백38위의 위패가 봉안돼 있다.

대웅전지역과 극락전 지역을 잇는 아치형의 능과교는 1708년(숙종24)에 건립돼 1745년과 1880년 두차례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전하는 매우 아름다운 다리다. 능과교 건너편 극락전 지역과 낙서암 지역은 빈터로 남아 있다. 극락전 입구에 '나무아미타불'이 새겨진 석주가 종상을 견디며 서 있고 낙서암 지역에 이르러는 첫 길에는 두갈래로 갈라진 못이 있다. 못에는 좌우로 '방생담계(放生塘界)' '용사활지(龍蛇活地)'라 쓰인 석주가 서 있다. 심바리말석주(높이 158cm)라 불리

사명대사가 일본에서 사리를 되찾아 온 지 120년 후에 건립됐다. 이에 얽힌 역사적 사실들은 영아탑비에 적혀 전하고 있다. 탑비는 전란의 생체기인양 3등분으로 깨어진 것을 맞춰 놓았다. 건봉사에는 현재 부처님 치아사리 8과가 보존돼 있으며 황금으로 장식된 사리함의 조형미도 일품이다. 사리와 사리함은 도굴꾼에 의해 도난당했다가 86년 다시 돌아왔다.

건봉사의 역사중 가장 빛나는 대목은 만일염불 도량으로서의 명맥이다. 만일염불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며 수행하는 이 염불결사



만일 염불결사로 극락왕생한 31명의 스님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건봉담. 군사지역에 있어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다. <자료사진>

## 금강산 일만이천봉 육로 언제 열릴까

건봉사 금강산 길목의 대가람...92년부터 일반인 출입

통일전망대 7년전 불자들 통일원력 모아 미륵부처님 봉안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 우리의 가슴에서 금강의 일만이천봉이 사라져 본 순간은 없다. 지난 10월 10일 일만이천봉의 절경으로 향하는 바닷길은 열렸다. 매주 세차례씩 현대 금강산 유람선인 금강호와 봉래호가 동해에서 정장항을 오가고 있어 '금에도 그리워' 금강산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광코스가 단조롭고 볼거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금강산 가는 길. 육로는 여전히 달린 상황에서 금강산을 향하는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진부령을 넘어서 가장 눈에 드는 것은 군대군대의 군부대들이다. 여전히 분단조국의 현실은 산골짜기마다 수 많은 군사시설로 대변되고 있는 것이다. 고성군 거진읍의 남방향계산 상에 위치한 통일전망대에 오르면 금강산은 바로 손에 잡힐 듯하다. 그러나 금강산은 눈으로만 만날 수 있어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에게 '가슴아픈 산'일 뿐이다. 끊겨진 백두대간의 아픔이 아닐 수 없다.

금강산 지역의 현종암, 복선암, 부처바위, 사공바위, 외추도 등의 작은 섬들이다.

남녘에서 금강산으로 이르는 길목에 자리잡은 대표적인 사찰은 건봉사다. 서기 520년 아도스님이 처음 절터를 잡아 도량을 열었던 건봉사는 철쭉선 너머 북녘의 산들이 내뿜는 숨 소리가 들릴만치 북에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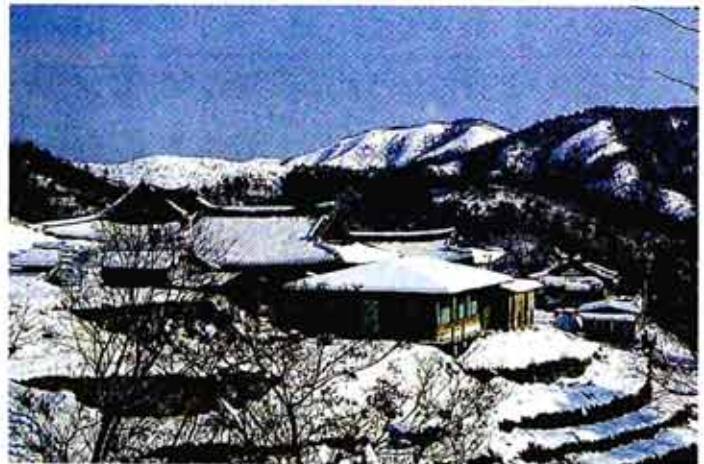
삼팔선이 이 땅을 둘로 갈라 세우기 전까지만해도 우리나라 4대 사찰의 하나로 꼽히고 31본산의 하나로 그 명성을 떨쳤던 건봉사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1992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기 전까지 건봉사는 잊혀진 절 중의 하나일 수 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건봉사는 다섯 구역으로 나누어 진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대웅전 지역과 불이문 원림의 극락전 지역, 그 위쪽 영지(影池)를 지나면 바로 나타나는 낙서암 지역, 또 그 뒷쪽 사리탑을 중심으로하는 팔상전 지역, 그리고 기타 지역이 그것이다. 한 사찰을 이렇게 다섯 구역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자체로서 건봉사의 옛 사적을 알려주는 것이다. 현재 담우가 들어선 곳은 대웅전 지역과 팔상전 지역이다.

이 석주에는 각 면마다 심바리말을 뜻하는 도형이 새겨져 있어 눈길을 끈다. 도형은 '원월(圓月)-보사바리말' '반월(半月)-지계바리말' 등의 의미를 품고 있는데 이는 건봉사가 심바리말 신령의 도량으로 자리잡았던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는게 학계의 분석이다.

팔상전 지역은 적멸보궁이다. 1605년(선조38) 사명대사가 일본에서 되찾아 온 부처님 치아사리를 봉안한 세존영아탑이 이 지역의 중심이다. 세존영아탑은

서기 758년(경덕왕17) 건봉사를 중창한 발징(發徵)화상이 정신(貞信) 양순(良順) 등의 신도와 함께 개설한 것이 효시다. 이 때의 결사에는 31명의 스님과 1820명의 신도가 참여했다고 <건봉사사적기>가 전하고 있어 상당한 규모의 수행 운동이었다. 사적기는 또 이때의 결사에 동참한 31명의 스님과 신도 다수가 극락왕생의 가피를 입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때 31명의 스님들이 육신 등공했던 사실을 기리는 등공담은 현재에도 전하



남에서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건봉사는 우리 나라 4대 사찰이었다. 새로 복원된 건봉사 대웅전 지역 전경.

고 있으나 군사분계선 안에 있어 일반인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두번째 만일염불회는 1802년(순조2) 용허스님이 결사 했으며 이때에도 왕실과 지방관료들의 지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1851년(철종2)에 개설된 만일염불회 결사에서는 10여명의 스님들이 치아와 눈에서 26개의 사리를 내놓는 등 이적이 속출했고, 이때의 사리들이 모셔진 사리탑(만일회동사생사리탑)은 지금도 건봉사 부도밭에 장하고 있다. 부도전에는 또 김개화 등의 신도들의 생사리탑 2기도 남아 있어 건봉사 만일염불회의 신비를 더하고 있다.

이같은 열불만일회의 역사는 올 8월 5일부터 다시 이어졌다. '원하게 신나게 멋있게 열불합시다'를 주제로 여섯번째의 만일염불 결사를 이룬 것이다. 3천여 대종이 동참한 이 결사는 등항대종이 생활 속에서 열불을 하며 통일과 새로운 삶을 발원하고 있는 것이다.

건봉사는 극락전지역과 낙서암 지역을 중흥해 옛사적을 되찾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 보다 면밀한 발굴작업과 역사적 가치규명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글=일연대 기자(yil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심바리말 석주.



건봉사 극락전지역의 빈 터를 두개의 석주가 지키고 있다.

## 결산 국토 등줄기 불교문화 숨결 재확인

백두대간. 우리 국토의 등줄기를 따라 9지역의 산맥을 더듬었다. 남한지역 백두대간 670km에는 불교의 정신과 문화가 속속 깃들여 있었다. 외세의 침입으로 인한 수난의 흔적이 아로 새겨져 있는가 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존해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순박한 열원의 유적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세대를 이으며 전해진 값진 문화유산들이 대간의 자락들을 빛내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크나큰 기쁨이었다. 취재팀은 대간의 줄기를 탐사하며 그 속에서 어제와 오늘의 숨결을 듣고자 했다.

**지리산** 일본 열도로 흐르는 대간의 맥을 끊는다는 이유로 일본에 의해 일란 이후부터 줄곧 수난을 당해온 지리산 법계사와

실상사 보광전의 종을 소개했다. 또 지리산 지역에 버려진 폐사지들을 탐사하며 보존 대책이 시급함을 고발했다. <165호>

**덕유산** 백련사, 원통사, 안국사를 탐사하며 일란과 조선말기의 항일 정신을 되새겼으며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포장도로들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현상을 소개했다. <169호>

**속리산** 범주사의 역사 사상적 배경과 문명사적 가치를 소개했다. <174호>

**이화령** 불교문화가 반도의 북에서 남으로 전해진 요인인 계림령과 조령. 이화령 지역을 탐사하며 대간이 문화 이동의 중심이 됐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길거리 5층 석탑의 지대석을 한 과수원에서 찾기도 했다. <177호>

**소백산** 영남 지역 불교 사상의 주요 흐름을 마애불의 조성과 부석사의 조형적 의미를 통해 더듬어 보았다. <182호>

**태백산** 우리 민족 정신의 시원지인 태백산에서 발원된 불교신앙의 가치를 소개하며 지장스님의 유골이 안치됐던 것으로 전해지는 석혈을 탐사했다. <187호>

**모태산** 문수보살 상주도량으로 여겨지는 오대산 신앙의 근원과 의미를 상원사 적멸보궁을 통해 알아 보았다. <192호>

**설악산** 백담사와 신흥사 등 거대 사찰에 깃든 불교사적 의미와 오늘날의 통일 열원. 지역포교에 나서는 이 지역 불교의 흐름을 정리했다. <194호>

## 용성스님 어록



인연이 모이면 나라 나는 것이요 인연이 떠나면 흩어지는 것이 다. 달이 없어서 아니 보 이는 것이 아니니. 일해법이 다 이와 같은지라. 사람이나 죽생이나 모두가 인연따라 나는 것이요 인연따라 흩어지는 것이니 그들의 본연한 성품은 생멸취산이 원래 없는 것이다.

대성사(583-1475) · 대각사(765-0972) 경주 천통사(0561-748-8815)